

규장각 사계

MARCH 2020

규장각 NEWSLETT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ol. 38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전주지도 전체 모습

표지설명

《전주지도(全州地圖)》(古軸 4709-46)의 일부입니다. 《전주지도》는 봄꽃 만발한 전주시 사대문 안팎을 그린 회화식 지도이며, 현전하는 가장 이른 전주 지도입니다. 이 그림은 1750년 즈음 전라도에서 활동한 화원 김희성(金喜誠, 1676~1759)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표지 그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언덕은 전주 이씨의 발상지인 이목대(梨木臺)와 이성계가 자축잔치를 벌인 오목대(梧木臺)가 자리한 곳입니다. 행차의 주인공은 천막 안에 있는 듯하고 그가 타고 온 호피 가마가 그의 지위를 말해줍니다.

그림을 통해 조선시대 봄의 정취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규장각 그림을 펼쳐다』, 32~35쪽 참조

규장각 칼럼

‘양녕’(讓寧)과 ‘효령’(孝寧) **03**

규장각 소식

인사 소식 **06**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지원과제 공모 **07**
 보존수리 사업 결과 보고회 **08**

연구 사업

국제한국학센터 펠로십/그랜트 **10**
 집부도서 조사사업 2단계 3년차 연구 개시 **11**

학술행사

국제한국학센터 저자특강 **14**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 주관 학술행사 **15**
 고려시대 물질문명 워크숍 **16**

규장각 도서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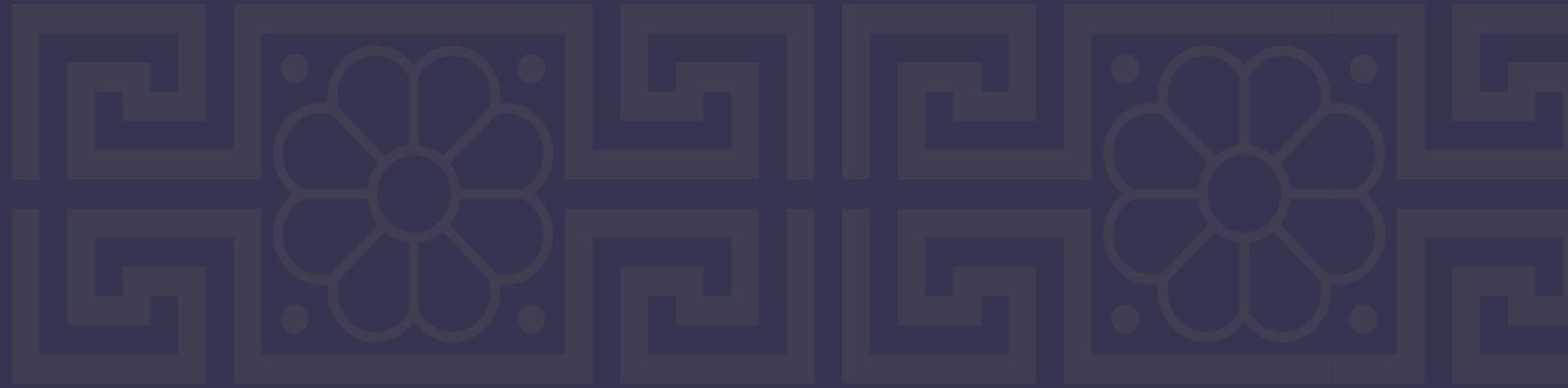
규장각자료총서 어학편 『경서정음(經書正音)』 **18**
 규장각자료총서 유학편
 『주자어류고문해의(朱子語類考文解義)』
 『고문서』 59 **19**
 『규장각소장문집해설 - 19세기』 16, 17 **20**
 『해빈궁일기』 (한국학자료총서 27) **20**
 『규장각 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문화』 89호 **21**

미리 보는 규장각

열람실, 전시실 휴관 안내 **23**
 한문강좌·금요시민강좌 개강 안내 **23**
 자체 수리복원 사업 **24**

규장각 칼럼

'양녕'(讓寧)과
'효령'(孝寧)



규장각 칼럼



이 현 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양녕’(讓寧)과 ‘효령’(孝寧)

다들 안녕(安寧)하시지요? 앞으로 2년간 우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무탈·무사하게 한국학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내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원장으로서 원내의 조화로운 운영과 원외와의 원만한 협력관계 구축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자 ‘寧’의 본음(本音)과 속음(俗音)에 관한 문제입니다. ‘寧’의 본음은 ‘녕’입니다. 물론 단어의 맨 앞에 갈 때에는 두음법칙에 의하여 ‘영’으로 바뀝니다. ‘영정치원’(寧靜致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야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음)의 ‘영’이 그 한 예가 되겠지요. 그런데 ‘寧’은 두 번째 이후의 위치에서 그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녕’이라는 본음 대신에 ‘령’이라는 속음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의 네 형제, ‘양녕대군’(큰형), ‘충녕대군’(본인), ‘성녕대군’(아우)과 ‘효령대군’(둘째형)의 두 번째 음절의 한자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백제의 ‘武寧王’ 역시 ‘무녕왕’이 아니라 ‘무령왕’이 되어야겠지요? ‘회령’(會寧), ‘부령’(富寧), ‘의령’(宜寧)이라는 지명 역시 그러합니다. 이러한 속음은 다 한글 표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寧’이 ‘녕’과 ‘영’, ‘령’의 세 가지 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ning], 일본에서는 [nei]라는 한 가지 음만 있을 뿐입니다. ‘遼寧’을 우리는 ‘요령’이라고 발음하며 적습니다. 다만, [liaoning]이라는 중국어 발음에 이끌려서인지 중국 조선족들은 ‘료녕’이라 발음하며 적고 있고, 북한의 문화어에서도 그렇게 발음하며 적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도 ‘요령’이 아니라 ‘요녕’으로 발음하며 적고 있는 경우가 보이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요령’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 관아인 ‘敦寧府’는 한글로 적을 때 ‘돈녕부’라고 하여야 하지만, 예로부터 ‘돈령부’로 적고 발음을 [돌령부]로 해 왔습니다. 예외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한자어의 ‘ㄴㄹ’ 연속체의 발음이 [ㄹㄹ] 외에 [ㄴㄴ]으로도 되고 있으니(‘公權力’이 [공꺄력] 외에 [공꺄넉]으로도 발음되고 ‘全羅’가 [절라] 외에 [전나]로도 발음됨), 앞으로는 ‘돈령부’가 그 발음이 [돈녕부]가 되고 표기도 ‘돈녕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변화해 간 발음과 표기가 오히려 올바른 방향, 즉 본음을 지키는 쪽으로 향해 간 셈이 되겠지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 태조가 중국에 ‘朝鮮’과 ‘和寧’을 후보로 올린 새 왕조의 국명이 ‘조선’으로 귀결된 바 있습니다. ‘和寧’은 태조의 고향 지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이것을 한글 표기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녕’인가요, ‘화령’인가요? 그렇습니다. ‘화령’이라고 적어야겠지요. 현대 인명 ‘이승녕’(李崇寧)과 ‘이어령’(李御寧)의 차이 역시 이제 분명히 잘 인식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十月’이나 ‘十王’이 [시월]이나 [시왕]으로도 발음되고 ‘六月’이 [유월]로도 발음되는 것은 ‘十’이나 ‘六’ 자체의 속음이 [시]나 [유]인 것이 아니라 두 음절 이상의 한자어 전체에서 첫 음절의 속음화(俗音化)(‘五六月’이 [오뉴월]이 되는 것은 둘째 음절의 속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寧’의 한국한자음은 자음 뒤에서는 ‘녕’이고 모음 뒤에서는 ‘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敦寧府’가 ‘돈령부’가 되어 예외적 표기를 보였던 것처럼, ‘粗寧’을 ‘조녕’이라 적고 ‘休寧’을 ‘휴녕’이라 적는 예외적 표기가 보여 좀 정신 사나워질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원칙은 대체로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다들 영일(寧日)이 죽 이어져 미령(靡寧)하지 마시고 수복강녕(壽福康寧)하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장각 소식

인사 소식	06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지원과제 공모	07
보존수리 사업 결과 보고회	08

규장각 소식

인사 소식

- 이현희 원장님께서 2020년 2월부터 2년간 원장 직을 연임하시게 되었습니다.
- 2월에 부원장, 기획연구부장, 편집간행부장, 정보자료관리부장, 국제한국학센터 소장·부소장 등의 보직자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위	소 속	학과(부)	직 급	성 명	기타
원 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현희	연임
부원장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은기수	
기획연구부장	인문대학	국사학과	부교수	정요근	
학술교육부장	인문대학	미학과	부교수	이정환	연임
편집간행부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서철원	
정보자료관리부장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조영준	
국제한국학센터소장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	성상환	
국제한국학센터부소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La Shure Charles (나수호)	

- 01 2018~19년도 보직자**
좌측부터 이정환, 김경숙, 류준필, 문삼은, 정원재, 이현희, 박수철, Sem Vermeersch, 황재문, 강문식
- 02 신규 보직자 (2020~2021)**
좌측 시계방향으로 이정환, 황재문, 서철원, 정요근, 조영준, 강문식, 이현희, 은기수, 문삼은



2월 인사 소식

- 시설관리직 권순용 선생님이 은퇴하고 강효연 선생님이 입사하여 오셨습니다.
- 전사실 연구원 김슬기 선생님이 사직하고 행정실의 김보라 선생님이 전사실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 국제한국학센터 조교 문윤영 선생님이 사직하고 김한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월 인사 소식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신병주 선생님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교수 홍주표 선생님께서 각각 6개월(2020.03.01~2020.08.31), 1년 동안(2020.03.01.~2021.02.2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방문학자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유문화재위탁관리지원사업-목록팀'의 선임연구원 구슬아 선생님과 연구원 정혜린 선생님이 퇴직하고 책임연구원으로 조계영 선생님, 연구원으로 서진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지원과제 공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21세기 신규장각 자료 구축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한국학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가지 부문(자료 연구·저술·학술모임·학술대회·신진학자 초청)에 대한 지원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중 4가지 부문(자료 연구·저술·학술모임·학술대회)의 공모는 현재 진행 중(3월 6일-4월 3일)이며, 하반기에는 1가지 부문(신진학자 초청)에 대한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은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내 모든 연구자들에게 지원과제 공모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공고 기간을 보다 길게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한국학 연구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부문	사업 내용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단위: 만원)	기타
한국학 연구용역	규장각 소장 자료를 이용한 기초 연구 과제	5과제 내외	대형 3000 ~ 5000	1년
			중형 1000 ~ 3000	
			소형 1000	
한국학 저술 지원	한국학 제 분야의 개인 및 공동 연구로서, 연구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 있는 과제	10과제 내외	매해 1000	2년
한국학 연구클러스터	집중 클러스터	5과제 내외	500	1년
	중소규모 집담회	10과제 내외	300	1년
한국학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10과제 내외	800	1년
	국내 학술대회		400	

서류 제출 기한
공고일 - 2020년 4월 3일 17:00
(우편 및 방문 접수/우편은 마감일 소인 기준)

사업 문의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02-880-2647)

보존수리 사업 결과 보고회

정보자료관리부는 2월 20일 2층 수리복원실에서 '2019년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을 비롯하여 보존수리 사업 위원회 위원, 사업별 담당자, 주관 사업자 등 7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업별 완료 보고 및 결과물 전시가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은 수리복원·보존처리, 보존환경제어, 대체본 제작, 보존처리 연구, 정보화 등 5개 분야 20여 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규장각은 매년 각 사업의 세부 진행 과정과 결과를 수록한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 보고서」를 제작하여 유관 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 제작될 예정입니다.



- 01 귀중도서 원형복원 복제
- 02 조선왕조실록 원형복원 복제
- 03 송광사사적지도 모사본 제작
- 04 곤여전도 목판 인출

연구 사업

국제한국학센터 펠로십/그랜트	10
집부도서 조사사업 2단계 3년차 연구 개시	11

연구 사업

국제한국학센터 펠로십/그랜트

국제한국학센터는 해외 대학의 내·외국인 한국학 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한 인원은 펠로 1명, 주니어펠로 3명, 방문학생 3명 등 총 7명입니다. 구성원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이름	소속	연구 주제	연구 기간
펠로 (1명)	임승연 Lim, Sungyun	미국 콜로라도대학 University of Colorado	일제시대 산송에 대한 연구	2020. 03. 01. ~ 2020. 08. 31.
주니어펠로 (3명)	명수민 Myung, Sumin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	숲 만들기, 미래 만들기 한반도에서 과학과 정치, 생태적 연결성	2020. 03. 01. ~ 2020. 08. 31.
	김봉준 Kim, Bong Jun	대만 국립대만대학 National Taiwan University	근대 한중관계, 외교사, 대외정책연구, 19세기말 청조 대외 및 속방 정책	2020. 03. 01. ~ 2020. 08. 31.
	부찬용 Bu, Chan Yong	미국 프린스턴대학 Princeton University	철어권(鐵語圈)의 형성 냉전시기 남북한 및 일본에서 나타난 제철 소재 시청각 미디어의 비교분석을 통해 냉전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기	2020. 03. 01. ~ 2020. 08. 31.
방문학생 (3명)	박용준 Park, Yong-Ju	영국 캠브리지대학 University of Cambridge	한국 현대 민주주의 내에서의 시민권 개념 연구	2020. 03. 01. ~ 2020. 08. 31.
	이영초 Lee, Youngcho	영국 캠브리지대학 University of Cambridge	한국 기혼 가정의 자녀 출산 계획 남편의 성별분업을 중심으로	2020. 03. 01. ~ 2020. 08. 31.
	박주현 Park, Joohyun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UC Berkeley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탈)피해자화 국가와 페미니즘 운동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2020. 03. 01. ~ 2020. 08. 31.

집부도서 조사사업 2단계 3년차 연구 개시

집부도서 조사사업(舊 귀중본도서 조사사업)은 소장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국학 연구자에게 양질의 서지 정보와 원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 출범한 집부사업(연구책임자: 김수진)은 지난 7년간 소장 자료 6,327건을 실사하여 약 6,000여 건의 조사카드와 1,000여 편의 해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대폭 정리해 『규장각도서장서인보(奎章閣圖書藏書印譜)』 2책을 출판하고, 선본문집총서 400여 종의 원문 이미지를 전산화하였습니다.

올 해로 2단계 3년차에 들어선 집부도서 조사사업은 2단계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3단계 연구에 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첫째, 약 800여건의 원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단계 핵심 목표인 “규장각 소장 한국본 문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둘째, 2단계 사업의 완료를 기념해 현재 한국본 집부 가운데 해제가 서비스되지 않는 자료 150여종에 대한 해제 원고를 새롭게 전산화합니다. 셋째, 3단계 조사 대상인 중국본 집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기획합니다. 이창숙 자문위원(서울대), 김영진 자문위원(성균관대), 옥영정 자문위원(한중연)을 모시고 중국본 도서의 서지사항 기술법·중국 국가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장서 현황·중국본 해제 작성법 등에 대한 자문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집부사업은 2019년 출간된 『규장각도서장서인보』의 후속 작업을 위한 신규 장서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선본문집총서에 대한 추가 발굴과 공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학예연구관(한국한문학 전공), 최천식 선임연구원(동양철학 전공), 김유진 선임연구원(한국고전소설 전공), 홍진옥 연구원(한국한문산문 전공), 이승연 연구원(중국고전산문 전공), 김보람 연구원(중국고대사 전공), 이준영 연구원(한국한시 전공)으로 구성된 집부조사팀은 한국학 연구의 후속 세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다양한 인문학 연구자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 양질의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지정보

해제 정보 신설

+
-
🖨
🔍

새로 고침
영양선생
책재신경

원서명	현대어서명 신편포은선생집				
청구기호	海士 函 297				
편저자(한자)	朴齊純, 朴顯陽 共編	판본사항	新鉛活字本	간행지	開城
편저자(한글)	박남철 편	간행연도	大正3(1914)	출판처	龍隱書院
匡郭	-		版心		표기문자
紙張, 版心, 卷頭標名					
序跋, 卷首, 卷末					
表題紙, 片題紙	附				
藏書記, 片藏記					
귀고					
자료소개					
목차					
함칠					
소장본					
印記					
四部 분류	집부 별집류	기타	해군서관하고 기탁도서(2015.11.20)		

2단계 사업 완료

한국본 집부 미해제
도서 전체에 대한 해제 원고
업로드 예정

집부사업 중장기 계획(안)

단계	조사 대상	해당연도	연차	주요 조사 내용
1단계 (5년)	『한국본종합목록』 소재 별집류	2013	1년차	원본 853건 조사 (완료)
		2014	2년차	원본 887건 조사 (완료)
		2015	3년차	원본 879건 조사 (완료)
		2016	4년차	원본 1015건 조사 (완료)
		2017	5년차	원본 1163건 조사 (완료)
2단계 (3년)	『한국본종합목록』 소재 총집류 외	2018	1년차	원본 824건 조사 (완료) 『규장각도서장서인보』 편집
		2019	2년차	원본 706건 조사 (완료) 『규장각도서장서인보』 출판
		2020	3년차	한국본 집부 전수 조사 미해제 도서 해제 전산화
		2021	1년차	중국본 별집류 조사
3단계 (3년)	『중국본종합목록』 소재 집부 도서	2022	2년차	중국본 총집류 외 조사
		2023	3년차	중국본 집부 전수 조사

| 학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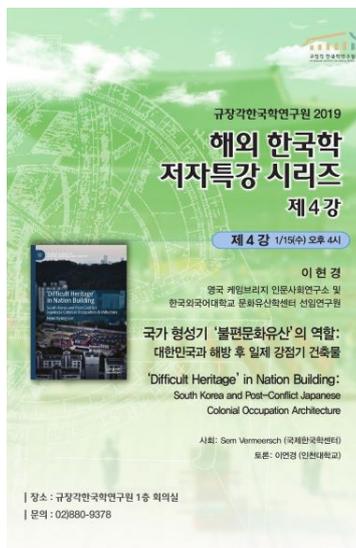
국제한국학센터 저자특강	14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 주관 학술행사	15
고려시대 물질문명 워크숍	16

학술 행사

국제한국학센터 저자특강

1월 15일에는 국제한국학센터의 2019년 규장각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제4강)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캠브리지대학 인문사회연구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학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 이신 이현경 선생님이 2019년 발간한 저서 "Difficult Heritage" in Nation Building: South Korea and Post-conflict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architecture (국가형성기 '불편문화유산'의 역할: 대한민국과 해방 후 일제 강점기 건축물)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불편문화유산"은 고통과 아픔을 준 역사와 관련한 문화유산을 지칭하고, 사후에 공동체 및 국가에 의해 평가 논란과 분쟁을 야기하며 그 공동체 및 국가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불편문화유산인 일제 강점기 공공건물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특강에는 토론자 이연경(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및 다수 청중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 주관 학술행사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에서는 지난 1월 17일에 2019년도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종합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에 선발된 고은임(서울대) · 한보람(서울대) · 박수정(한중연) · 임찬혁(서울대) · 왕비연(고려대) 총 5명의 신진학자가 반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도 신진학자 초청 연구 교류 발표회	
1	조선시대 소설에 나타난 復讐의 의미 발표: 고은임(서울대) 토론: 김홍백(서울대)
2	개항 전후 申櫓의 시무개혁신 연구 규장각 소장자료 《申大將軍集》 중 《琴堂詩文手稿》(8·9책)를 중심으로 발표: 한보람(서울대) 토론: 윤민경(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정조대 「국조오례통편」 편찬과 정치적 성격 발표: 박수정(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이현진(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4	20세기 初葉 한·중 관계의 변화와 閩島 한인 사회 발표: 임찬혁(서울대) 토론: 정진숙(규장각한국학연구원)
5	奎章閣本 《西廂記》의 번역 연구 발표: 왕비연(고려대) 토론: 윤지양(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고려시대 물질문명 워크숍

1월 31일에는 고려시대 물질문명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고려의 역사문화를 재검토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물질’ 연구”라는 주제로 7명의 발표자들이 참가하여 고려시대 물질문화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 김선(불교문화재연구소)은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찰 출토 퇴장유물(退藏遺物) 검토’ 라는 발표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찰 출토 매납유물 사례를 중심으로 출토된 기물과 종류를 분석하였습니다. 공만식(수원가톨릭대)은 ‘고려시대 육식문화 재고’ 라는 발표에서 고려사회의 육식문화 미발달 원인이 불교사상에 근거하기보다는 『예기』나 『월령』에 기반한 유교적 통치이념과 의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성순(한국전통문화대)은 ‘물질로 본 고려불교 의례: 병향로를 중심으로’ 라는 발표에서 고려시대까지 유물이나 문헌상 나타나던 병향로가 조선시대 전기 이후 향완이나 거치형 병향로에 자리를 내준 현상을 의례의 변화에 따른 불전의 구조와 바닥 양식의 변천과 맞물려서 해석하였습니다. 정요근(서울대)은 ‘고려시대 성곽의 입지적 특징과 기능’ 이라는 발표에서 평지성의 기능, 배후 성곽의 공통적 특성, 한 지역에 복수의 성곽이 있는 곳과 성곽이 없는 곳의 의미를 분석하여 고려시대 산성읍치설의 허구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최선일(문화재청)은 ‘북한 사찰의 14세기 중반 금동여래좌상 연구’ 라는 발표에서 북한 사찰에 봉안된 14세기 전 · 중반의 금동불과 일제강점기 작성된 재산대장 및 유리건판을 남한에 현존하는 이 시기 기년명 금동불과 비교하여 조성 시기와 조성 지역을 검토하였습니다. Sem Vermeersch(서울대)는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六物: 승복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라는 발표에서 승복을 중심으로 당시의 문화상을 밝히고 승려들의 일상의례를 고찰하였습니다.



규장각 도서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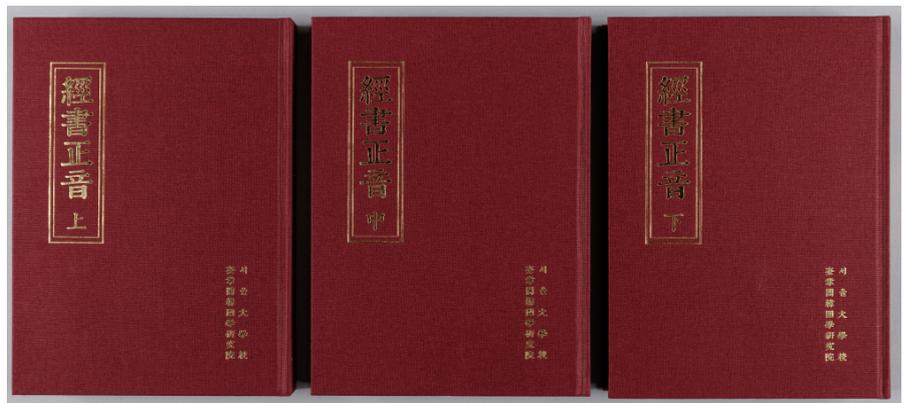
규장각자료총서 어학편 『경서정음(經書正音)』	18
규장각자료총서 유학편 『주자어류고문해의(朱子語類考文解義)』	19
『고문서』 59	19
『규장각소장문집해설 - 19세기』 16, 17	20
『혜빈궁일기』 (한국학자료총서 27)	20
『규장각 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	20
『한국문화』 89호	21

규장각 도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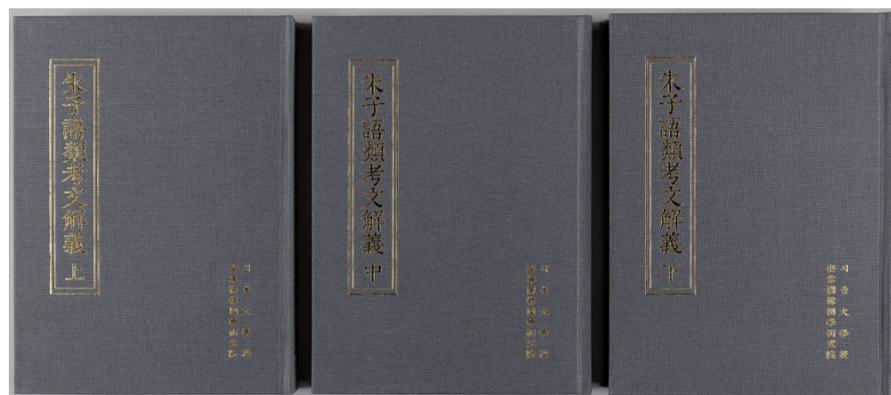
규장각자료총서 어학편 『경서정음(經書正音)』

규장각자료총서 어학편 시리즈 제12책으로 『경서정음』(經書正音)이 영인·간행되었습니다. 『경서정음』은 조선시대 역관들이 경전의 정확한 중국어음을 익히기 위해 편찬한 교재입니다. 『논어』·『맹자』·『대학』·『중용』·『시경』·『서경』·『주역』·『춘추』 등 8종의 유교 경전의 본문 밑에 한글로 중국어 음을 표기한 역학서입니다. 영조대 활자본이 간행된 이후 정조대 목판본이 제작되었는데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목판본 『경서정음』(도서번호 규 4392)은 가장 선본으로 평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규장각 소장 『경서정음』의 영인 간행이 영·정조대 사역원에서 수행한 역학서 편찬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규장각자료총서 유학편 『주자어류고문해의(朱子語類考文解義)』

『주자어류고문해의』는 18세기의 학자 이의철(李宜哲, 1803~1778)이 저술한, 『주자어류(朱子語類)』 140책 전체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이 책은 이의철의 또 다른 저서인 『주자대전차의후어(朱子大全筭疑後語)』와 함께 그의 주자학 연구를 대표하는 저술로, 17~18세기 전만 서인 학계의 『주자어류』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발간의 저본이 된 책은 『주자어류고문해의』(도서번호 古 1344-19)입니다.



『고문서』 59

고문서 이용 고도화 사업의 결과로 『고문서』 59가 간행되었습니다. 제59책에는 사인문서(私人文書) 중 경기도 파주(坡州), 포천(抱川), 풍덕(豊德)의 토지문기(土地文記) 440여 건의 탈초문(원문 텍스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규장각은 국내 최대 고문서 소장기관입니다. 문서의 발급 주체와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탈초를 거친 원문텍스트는 『고문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규장각 원문검색 서비스 내의 ‘고문서’에서는 책자로 간행된 고문서의 원본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p>고도서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 고도서</p>	<p>고문서 국내 최대의 고문서 소장 기관 규장각</p>	<p>고지도 유형별, 지역별로 볼 수 있는 고지도</p>	<p>문화재청 학술DB 규장각은 문화재청 지원으로 2014~2018년 규장각 장서각 연계 기록유산 DB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p>	
<p>편년사 현대순으로 정리된 조선의 역사</p>	<p>의궤 왕실의 중요의식, 행사과정을 담은 보고서</p>	<p>근대정부 기록류 근대 조선의 국정 운영 관련 기록</p>	<p>기증기탁 자료 규장각은 조선시대 3대에 행방 이후의 기증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도서를 기증·기탁받아 관리하고 있다</p>	
<p>e-규장각자료총서</p>	<p>일성록</p>	<p>동궁일기</p>	<p>등록류</p>	<p>관보</p>
<p>밀람본실록</p>	<p>장토문적류목록</p>	<p>사인문서</p>	<p>지역별 고지도</p>	<p>문집해설</p>

『규장각소장문집해설 - 19세기』 16, 17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약 30,000여 종의 귀중한 고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문집은 2,000여 종입니다. 문집은 사상사 연구 뿐 아니라 국문학·국사학 등 한국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연구자료이며 선인들의 업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일차적이고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총 38책의 문집해설이 간행되었으며, 제26차 사업 결과로 『규장각소장문집해설-19세기』 제16~17책(2책)이 간행되었습니다.

『규장각소장문집해설』은 매년 출판물로 간행되고 있으며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내의 ‘문집해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학자료총서 『혜빈궁일기』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의 성과로 한국학자료총서 27 『혜빈궁일기: 현전 유일의 궁궐 여성 초서 일지』가 출판되었습니다.

『혜빈궁일기』는 1764~5년 동안 사도세자의 부인 혜빈공(혜경궁) 홍씨의 처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간장과 김치를 담그는 일, 옷감을 나누고 염색을 하는 일, 단오, 유두, 중앙절에 진상하고 하사한 물건 등 흥미로운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내관과 내인이 어떻게 근무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등은 다른 기록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규장각 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

『규장각 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은 2011년 처음 발간되었는데, 이후 『동의보감(東醫寶鑑)』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고, 의궤(儀軌)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증보판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규장각 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에는 규장각 소장 국보 8종, 보물 26종, 세계 기록유산 5종에 대한 소개와 해설, 도판 등이 담겨있습니다.

- 01 「규장각소장 문집해설」
- 02 「혜빈궁일기」
- 03 「규장각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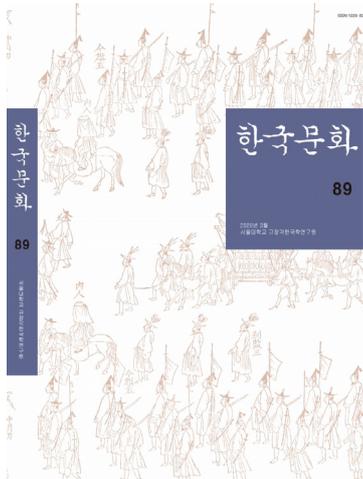
01



02



03



『한국문화』 89호

『한국문화』는 문·사·철 분야는 물론 미술사학, 국악학, 건축학, 종교학, 서지학 등 한국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한국학 학술지입니다. 한국문화는 2007년 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이후 1년에 4회 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제 8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수록 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집논문]

특집 I 정조대 조선의 학술 지형 - 권력, 지식, 도시

강문식,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정호훈, 『누판고(鑪板考)』의 지식 세계와 조선 학술

백승호, 正祖年間 南人 文壇과 知識人의 結束

백민정, 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

이경구, 곤경에서 곤혹으로: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낙론 학자들의 딜레마

특집 II 식민지기 조선 북부의 개발과 지역사회

고태우, 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 인식과 정책의 추이

박우현,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횡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양지혜, 일제하 대형 댐의 건설과 '개발재난':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8-45년)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택지경영사업의 전개: 평양을 중심으로

노성룡, 일제하 면양장려계획(1934~1945)의 전개과정과 식민지개발

김태현, '신의주·안동' 지역 밀무역 단속의 변화와 밀수출품 운반업자의 대응(1929~1937)

[일반논문]

정승철, 운동주와 함북 방언

김유겸,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변화의 진행과 방향에 대하여

송웅섭, 중종 초반 왕권의 신장과 도덕적 권위 사이의 긴장

이강욱, 조선후기 東西 兩班 官職의 분류

유지복, 근대기 서예·전각가 金台錫(1874-1951)의 생애와 예술 활동

미리 보는 규장각

열람실, 전시실 휴관 안내	23
한문강좌 · 금요시민강좌 개강 안내	23
자체 수리복원 사업	24

미리 보는 규장각

열람실, 전시실 휴관 안내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규장각 열람실과 전시실의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개관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강좌 · 금요시민강좌 개강 안내

한문강좌는 통상 3월 첫째 주에 시작되었으나, 개강을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과목	강사	교재
초서기초학습	최형보	『백운초결가』 및 『초천자문』 합본
고문서 강독	최승희	『고문서』(자체 교재)
유학한문강좌	박정철	『대학 · 중용』 및 『논어』
불교한문강좌	박해당	『능가경』

금요시민강좌 제24기는 4월 3일로 개강을 연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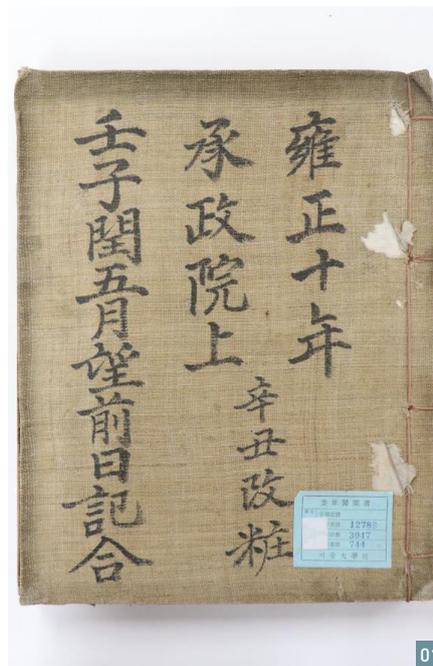
강의 주제	"파격(破格) - 통념을 넘어서려 했던 한국인들"
강의 일시	매주 금요일 14시~16시(2시간)

주차	강좌 제목	강사명(소속)
1주차	이규보	이은주 (서울대 기초교육원)
2주차	신돈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3주차	세조	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주차	원효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5주차	윤두서	고연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6주차	김정희	정혜린 (서울대 종교학과)
7주차	대원군	노대환 (동국대 사학과)
8주차	허균	정호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주차	이돈화	허 수 (서울대 국사학과)
10주차	이미륵	최윤영 (서울대 독문학과)
11주차	김일엽	방민호 (서울대 국문학과)
12주차	안중근	황재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주차	박열	정준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 수리복원 사업

정보자료관리부 수리복원팀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체 수리복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소장자료의 보존과 관리, 연구 활용성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리 대상 자료는 『승정원일기』(규 12788), 『고화첩』(규 11681), 『삼재도회』(규중 4148) 등을 비롯하여 총 18점입니다.

- 01 승정원일기
- 02 삼재도회
- 03 고화첩



01



02



0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